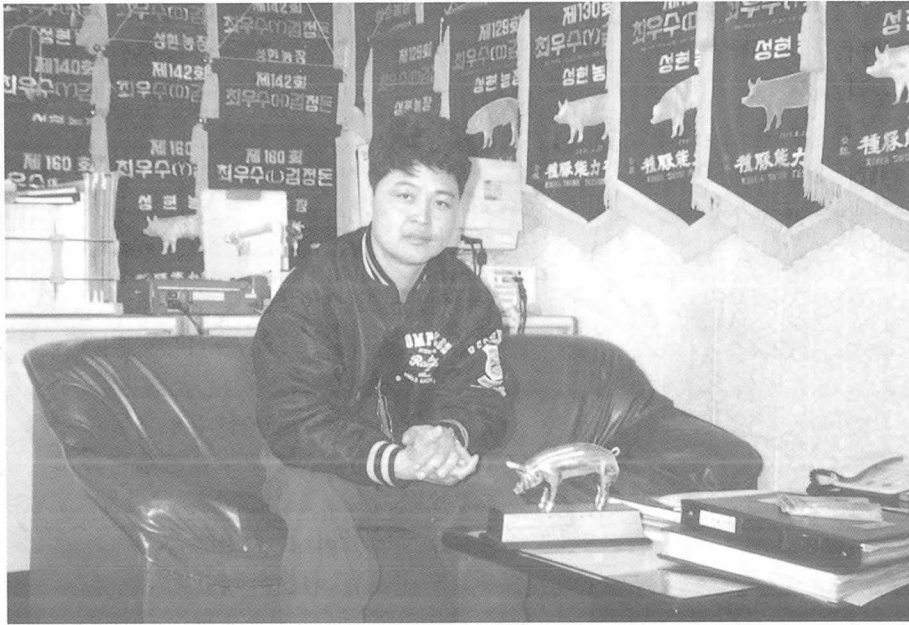


'97 제1검정소 최우수 농장상 수상한 성현농장



▲농장 사무실에서 최우수농장 상패를 내어 보이는 김영석 사장. 최우수돈 배출횟수를 실감나게 한다.

성현농장(대표 김영석)은 '95, '96년에 이어 지난 2월 20일 제1종돈능력검정소에서 실시한 '97 우수·최우수 농장 시상식에서도 최우수 농장으로 선정돼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종돈을 출품하고 있는 종돈장으로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총 1000여두를 제1검정소에 출품한 성현농장은 지난 '97년 한해 12회에 걸친 최우수돈을 내면서 69%라는 높은 합격률로 198.7점을 얻어 최우수 농장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2800여두를 7명의 인원이 관리하고 있는 성현농장(소재: 경기도 백석면 가업리, 전화: 0351-879-7199)은 '89년부터 돈군을 조성하고

92년부터 종돈장을 시작한, 길지않은 경륜에도 불구하고 김영석 사장의 우수한 종돈도입 노력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종돈도입에 과감한 투자

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원종돈을 수입하고 있는 성현농장은 도입시 우수한 종돈을 도입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올해 역시 환율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적지않은 수의 원종돈을 작년 12월에 도입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하며, 필자가 열람해 본 15두 도입원종 등록종의 경우 105kg 도달일령이

130일정도, 일당증체량이 1290g 정도로써 우수한 종돈을 도입하는 것을 실감나게 했다.

김영석 사장은 듀록 이외에도 렌드레이스 포함 4개품종 도입 원종돈 모두가 국내 최고의 종돈이라고 덧붙이며, 고품질의 사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지체가 강건한 우수한 품종의 돼지를 사육함으로써 사양관리에도 어려움이 적다고 이야기 했다.

실제로 본회 제1종돈능력검정소에서 실시한 최우수돈 선발에서 성현농장은 렌드레이스, 듀록, 요크셔, 바크셔 4개품종 모두 최우수돈으로 선발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성현농장은 자동 안개분무로 4시간 간격으로 소독을 해 주고 있으며,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한달에 한 번 무작위로 선발한 100두를 가축위생연구소에 의뢰하여 질병발생을 조기점검하고 있으며, 여태껏 질병이 발생해 농장이 피해를 입었던 적은 없었다고 한다.

농장의 운영에 가족들, 특히 동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며 3년전부터 시작하여 동생이 맡고있는 AI센터에서 성현농장 돼지의 100%는 물론, 매달 1,500두 정도의 돼지를 인공수정 시킨다고 한다.

또한 모돈 700두 규모의 GP농장인 서산 태광농장을 계열농장으로 두어 종돈을 공유하여, 한층 나은 품종을 유지·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얻고 있기도 하였다.

본회 SEW 사업장에 많은 자돈 입식, 경매결과에 지대한 관심가져

김영석 사장은 개인적으로 SEW(조기격리 이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캐나다 템스벤드 농장에서 지난 97년 9월말에서 10월까지 15일



▲제1종돈능력검정소 시상식에서 최우수 농장상패를 정속근소장(왼쪽)과 김영석사장(오른쪽)이 함께 들고 있다.

가량 SEW교육을 받고 되돌아 오는 등, 앞서가기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농장을 새로이 이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며, 새로운 농장에 SEW 사양시스템을 적용해 불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는 본회에서 11월에 처음 자돈을 입식하기 시작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경매에 들어간 SEW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본회 제1종돈능력검정소 산하 SEW사업장에 자돈 200여두(매달 40~50두)를 이미 출품하였으며, 경매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요즘의 IMF 상황으로 인한 사료값과 기자재 가격의 폭등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냐는 필자의 질문에 "별다른 특효약이 있진 않겠죠. 어려울수록 열심히 노력해서 1두라도 더 잘 키워내어야죠"라고 사람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참고로 성현농장의 올해 제1종돈능력검정소 출품돼지의 평균증체량은 1017g이며, 사료요구율은 2.24, 90kg도달일령 130일, 등지방 1.43cm이다. <취재 : 조진현> **養豚**